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12주일

2024년 6월 23일 / 제643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유연호 제1독서 문성익 제2독서 유인숙 / 입당 59 봉헌 215, 511 성체 187, 154 파견 199  
Narrator Augustine Sung 1<sup>st</sup> Reader Sylvia Sicut 2<sup>nd</sup> Reader Emiliana Lee

입당송 | 시편 28(27),8-9 참조

주님은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요새이시다. 주님,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 재산에 강복하시며, 그들을 영원히 이끌어 주소서.

제1독서 | 욕기 38,1.8-11

화답송 |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제2독서 | 2코린 5,14-17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마르 4,35-41

영성체송 |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6월 23일	주일학교 NO	Fr. Peter
06월 30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7월 07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7월 14일	주일학교 NO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믿음, 풍랑 속 일상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사실 좀 섭섭한 꾸짖음입니다. 풍랑에 처한 우리가 당신을 믿고 깨우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뒤집힐 듯 출렁이는 배 위에서 살려달라 아우성치는 것 말고, 인간이 달리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풍랑 속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초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침묵, 마음의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린 곤장 이렇게 외치지요. ‘예, 주님! 그럼, 풍랑을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저희를 곧바로 살려 주십시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조바심. 어쩌면 우리로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낯선, 예수님의 굶땀이 이어집니다. 당장 풍랑이 일어 다 죽게 생겼는데, 삶의 위험이 가득한 이 위태한 순간, 예수님은 일상을 사시는 것으로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파도가 삶을 집어삼키는 순간에도 자던 잠을 계속해서 주무시다니. 세상이 혀를 차며 예수가 망해버렸노라 우리의 위태함을 감지하며 놀리는데, 하던 식사를 계속하시고, 어둠 속 잠자리에 드시며, 어제처럼 다시 일어나시는 주님. 예수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특별한 날에도 늘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믿음이란 풍랑을 멈추는 기적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삶을 계속해 살아내는 담담함,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평화라는 뜻.

인간의 살갗은 증폭기입니다. 바깥바람을 백배, 만배로 크게 감지하여 마음에 전하는 증폭기. 삶의 작은 바람이 우리 마음에 아리고 깊은 상처를 내는 이

유입입니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삶의 경험은 육신의 철석같은 믿음(?)이되어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살아보니 삶은 실로 위험한 항해. 매사 조심하며 두리번거리라고 자식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은 증폭기를 부숩버리는 선택. 주님을 닮은 참믿음은 사나운 바람조차 십 분의 일, 백 분의 일로 누그러뜨립니다. 믿는 자는 작은 위험을 과장하지도, 큰 시련에 짓눌리지도 않습니다. 참믿음은 폭풍우에 소스라치거나 기적 같은 미풍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때론 거세고, 때론 잔잔한 삶의 술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땅의 바람이 아니라 하늘의 한결같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풍랑을 멈추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우리를 삼키는 날도 옵니다. 죽음도 결국 오고야 말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여기 오늘의 풍랑을 벗어나는 안도 따위가 아닙니다. 크고 깊은 평화,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간직하리라는 희망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출렁이는 뱃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마르 4,38참조) 믿음은 마지막 그날까지 언제나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마음입니다.

이근상 시몬 신부 | 예수회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제충조절, 통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가끔 자신의 삶에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껏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항상 뭔가 부족하고 후회가 되곤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보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내 삶에 대해 불평하곤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혼자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나에게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삶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은 삶일지라도 그 삶의 뒷면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다가왔던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의 모퉁이마다 만난 천사 같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도,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항상 있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겸

손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1독서를 통해 과거의 시간 속에 다가온 하느님의 말씀이 단지 과거의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서’ 내 삶에 건네는 하느님 사랑의 초대임을 깨달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총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래서 독서 후에 하는 화답송은 ‘다가온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화답’하는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됩니다. 지난 시간 내가 받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미의 노래입니다. 내 삶의 어둠에 비춰진 빛에 대한 감사이고, 내 슬픈 시간의 눈물을 닦아 주시던 하느님 손길에 대한 찬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바탕으로 찬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약속이며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화답’합니다. 하느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화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미하며 응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느님 은총에 대한 응답의 노래인 “화답송”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던 그 순간조차도 당신 자비로 돌보시던 하느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내 삶을 그분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의 노래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b>COMPASS REALTOR® 부동산</b>  <b>AIDEN KIM 에이튼 킴</b> (니콜라오)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p>	<p><b>광고를 모집합니다.</b>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 6-7월 주요 전례 일정

- 6월 30일(주일): 제7기 사목회 사목위원 발표
- 7월 1일(월): 제7기 사목회 임기 시작(-2026월 6월 30일)
- 7월 4일(목): 평일 미사 없음
- 7월 7일(주일): 제7기 사목회 사목위원 임명장 수여
- 7월 11일(목): 성시간, 성전 미사 3주년
- 오늘(6월 23일) 교중 미사는 춘천교구 소양로 본당 신정호 모세 신부님과 만천 본당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님께서 함께 봉헌하십니다.

■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6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6월 23일(주일), 오후 1시·Room A
- 문의: 유인숙 요한나(925-708-8510)

■ 2024-2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 새학기 주일학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 장소: 성당 로비에 마련된 주일학교 테이블
- 신청서 링크: [www.tvkcc.org/sundayschool202425](http://www.tvkcc.org/sundayschool202425)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sundayschool@tvkcc.org)

■ Camp Creation 2024: Korean-American Catholic High School Summer Camp Registration is now open!!

- 대상: Incoming 9<sup>th</sup> - Graduating 12th Grade Students
- 날짜: July 26-28, 2024
- 장소: YMCA Camp Campbell
- 신청: <https://tinyurl.com/2024HSSummerCamp>
- 신청비: \$250 per student
- 신청 마감: July 7, 2024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925-394-4283)

■ 6월 반모임 일정

마태 3	6/27(금) 10AM	플레즌튼 파리바게트	612 849 0873
------	--------------	------------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538	\$413	\$2230	\$100	\$110	\$4391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6), 김승희(8-11), 김태우(4-6), 박주암(6), 송형철(6), 조재우(4-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6), 김승희(8-11)

- Bishop's Appeal

김성치(6), 김승희(8-11)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

*For Those Fleeing Their Own Countries*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that migrants fleeing from war or hunger, forced to undertake journeys fraught with danger and violence, may find welcome and new living opportunities in their host countries.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